

국가 무역수지 적자에도 굳건하던 광주·전남 흑자기조 흔들

7월 수출입 통계...전년 동월 대비 수출 15.5%↑·수입 50.1% 급증 무역수지 80% 급감...원유·석탄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수출환경 악화

국가 무역수지 적자 속에서도 굳건히 흑자를 기록해왔던 광주·전남지역 수출입의 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흑자를 유지했던 광주·전남은 7월 들어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지역 주력 수출산업 업황이 어둡다는 점에서 흑자기조가 깨지고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7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5.5% 증가한 62억6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50.1% 급증한 59억8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88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은 10% 증가했지만, 수입은 무려 50%나 급증한 것으로, 오랫동안 계속됐던 지역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7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4억43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와 비교하면 지역 무역수지는 80%나 급감한 것으로, 8억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전월에 비해서도 64.4%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 선방하고 있음에도,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7월 말까지 더한 누적 수출은 405억4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6% 증가한 반면, 수입은 34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5.5%나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59억2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90억1400만 달러)보다 34.2%나 감소했다.

앞서 광주·전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수출호황'을 누렸었다.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광주·전남 수출은 342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해 전국 수출 증가율 15.5%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전남은 올 상반기 전년 대비 32.4%나 증가한 253억6000만 달

리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국 무역수지가 1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광주·전남 무역수지는 57억1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입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다.

우선 지난 7월 전남지역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 13.7% (45억3000만 달러), 53.5% (50억8100만 달러) 증가해 무역수지가 5억51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원유(90.8%)와 석탄(116.3%), 화공품(57.5%)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이끈 것이다.

더욱이 이제부터 광주·전남 최대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의 경우 그동안 석유 수요 회복으로 단가와

물량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하반기 공급 안정으로 유가가 진정돼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 또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이 본격화하는 데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이밖에 철강도 유럽 등을 중심으로 세계 철강 수요가 정체,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물량과 단가의 동반 부진으로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의 주력 수출 품목인 가전제품은 일상회복과 코로나19 특수 종료 등으로 인해 소비지출이 줄면서 역성장장이 예상되는 등 하반기 광주·전남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은 실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16일 광주신세계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이 열리는 모습. 운수시설로 분류된 148㎡(45평) 규모 이 공간은 지역 특산물전 등 공익 행사가 열려야 한다.

광주신세계 “명품 팔 매장이 부족해요”

광천버스터미널 부지 2033년까지 추가 임차

㈜광주신세계가 터미널 부지를 추가 임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와 연결된 1층 부지 1081㎡(327평)를 ㈜금호터미널로부터 오는 2033년까지 추가 임차하기로 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말부터 다음 달까지 신규 해외명품 브랜드 매장과 대리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가 부지를 새로 빌려 가면서 매장을 내려는 이유는 “1층 매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 건물 1층은 금호터미널 부지에 묶여 있는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이다.

특히 1층 부지 가운데 148㎡(45평)에 해당하는 공간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기 공

간’으로 쓰여야 한다.

광주시 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 공간은 지난 2003년부터 문화행사 용도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공간에서 영리 목적을 지닌 판매가 이뤄질 때마다 논란이 야기됐다.

광주 서구는 이 같은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신세계 1층 부지 용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변경인가 범위 검토’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구는 운수시설과 대형 유통매장이 접합한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터미널과 수원역 등에 답사를 가기도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3조에 따르면 터미널 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 규모와 구조, 설비의 변경 등을 하려면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법령에는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서구는 변경인가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한 질의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보냈지만, 각각 ‘시에 입암하라’ ‘자치구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는 데 그쳤다.

광주 서구는 지난해 10월 건물 소유주인 금호터미널에 광주신세계 1층 일부 공간(이벤트홀)을 편의시설 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인가 용도 외 사용금지 등 개선 명령’ 공문을 보냈다. 이에 금호터미널과 광주신세계는 해당 공간을 지역 특산물전과 바자회, 각종 테마 체험관 등 공익적인 성격으로 운영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해당 공간(이벤트홀)에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중소기업 6개사가 참여하는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을 진행하고 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효성,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3억 기탁

지주사 4곳과 함께 마련

효성은 16일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한 성금 3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금은 지주사인 ㈜효성과 4개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이 함께 마련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이번 중부지역의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구호 인력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은 지난 3월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억원을 기부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역농업인의 따뜻한 동행 ‘쌀 사랑으로’ 1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에서 열린 ‘쌀 소비 촉진 캠페인’ 행사장에서 고성신(왼쪽 4번째) 농협 광주지역본부장과 김광진(왼쪽 3번째) 문화경제부시장, 광주 14개 농협 조합장 등이 시민들에게 쌀(1kg)을 나눠주며 쌀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광주본부부는 이날 쌀 10kg 300포를 광주시에 기탁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정부,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 공급...재개발 규제 완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발표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책이다.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 달 공개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연내 발표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요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정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최장 10년간 임대료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환뉴스

광주은행, 중기 추석자금 6000억 지원

광주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별자금대출’ 신규 자금 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규 자금은 오는 9월30일까지 지원된다.

광주은행은 추석 자금 대출을 이룬 추석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들 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위해 지원된다.

광주은행은 만기연장 자금을 지난 설 명절보다 1000억원 늘린 3000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해당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받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50억원 이내이다. 지난 설 특별자금대출 한도보다 20억원 증가했다. 또 산출금리 대비 최대 0.70%포인트를 감면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지난 7월 말 기준 3만1942건, 1조4257억원에 이른다.

송중욱 은행장은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펼쳐 지역과 상생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마트 맥스 호남 3곳, 축산 해썬 인증 취득

롯데마트는 호남지역 창고형 할인점 ‘롯데마트 맥스’ 3개 점포 모두 최근 축산 작업장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썬)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해썬 인증을 받은 점포는 맥스 광주상무점과 목포점, 전주송천점이다.

이 인증은 생산·제조·유통 과정에서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이 취득할 수 있다.

다른 대형마트의 경우 미리 가공된 축산 제품

비중이 높지만, 맥스는 판매장에서 가공 작업을 하는 상품이 많아 이번 인증을 추진했다. 롯데마트는 축산품질혁신센터에서 작업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 맥스 전체 매출 가운데 20%가량은 축산 부문이 차지한다.

롯데마트 맥스 3개 점포는 축산 작업장 해썬 인증 취득을 기념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33.52 (+5.58)
↑ 코스닥	834.74 (+3.11)
↓ 금리(국고채 3년)	3.078 (-0.103)
↑ 환율(USD)	1308.10 (+5.70)